

우리책 수출의 머나먼 길

출판사들 대부분 무관심... 아동·어학서 수출 증가는 괄목할 만

조상의 제삿상에 수입농산물 올리는 것이 예사로운 세대다. 가속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세계의 시장을 하나로 묶은 덕분이다. 출판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연초에 시장을 개방했지만 개방 이전부터 우리나라 출판물의 무역역조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책 가운데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를 웃돈다. 그러나 외국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책은 미미하다.

우리나라 책이 외국으로 얼마나 수출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1992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해외에서 번역출판된 국내도서'의 출판실태'를 조사했던 해목은 자료가 유일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펴낸 <정보로서의 책>에 수록된 이 집계 자료에 따르면 92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책의 누계는 240종. 대상국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 분야별로는 역시 문학이 142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수입물량에 비해 수출은 미미해

5년이 지난 현재, 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책의 정확한 양을 집계하기는 힘들지만 얼핏 훑어보아도 92년 당시보다는 많이 늘었다. 특히 92년 통계에서 각각 16권, 4권으로 집계된 아동과 어학 분야에서의 수출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금성·웅진·계몽사 등 아동출판사들과 시사영어사 등 대형 출판사들이 수출에 적극성을 띤 덕분이다.

금성출판사는 1988년 벨기에의 드베크 웨스펠사와 계약을 체결, <애니메이션 명작동화>(전60권) 전집을 수출함으로써 아동물의 수출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로 '캠프 토이북' 시리즈 중 일부를 스페인의 SUSA-ETA사에 수출했고 '학습만화 한국의 역사'(전23권)를 일본 포플라사에 수출하는 등 모두 10여건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웅진출판사는 계열사인 웅진미디어의 제품을 합해 모두 6종을 수출했다. <올챙이 그림책>(1-12권)이 홍콩 신아문화사업유한공사로 팔렸고 '한국전래동화' 중 두 권을 태국과 미국의 출판사에서 사갔다. 웅진미디어의 경우 <웅진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전22권)가 일본 포플라사로 <웅진 애니메이션 세계의 역사>(전24권)가 대만의 콰프(Qua-

- 우리 출판물 가운데
- 번역서의 비중은 해마다
- 높아지고 있는 반면 외국으로
- 수출된 우리나라 책은
-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 수준이 높아진 아동출판물이나
- 어학서를 제외한 분야의
- 수출이 전무한 상황은
-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의 문제를
- 생각케 한다.

ff book press) 출판사로 나갔다. 이윤복 어린이의 수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일본 소문서점으로 팔렸다.

이밖에도 계몽사가 <그림한국사> <그림학습과학> 등의 책을 수출했고 예림당도 '차일드 미니북스'(전50권)를 수출하는 등 아동 분야에서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고 각 출판사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어학출판사로는 시사영어사가 수출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현재 11종이 수출된 상태. <영·한·한·영 사전>이 미국 히포크렌 출판사로 팔려나간 것을 필두로 <Practice Toiec Test, Vols. 1&2>와 같은 영어 학습서들이 일본, 중국 등 주로 아시아권으로 수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출판사는 대체로 해외업무 전담자나 전담부서를 두고 영문 샘플북이나 영문 브로슈어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적극성을 띤다.

웅진출판사의 김경순 대리는 특히 각종 도서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들 출판사의 계약 상담 가운데 많은 건수가 도서전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관심을 갖는 출판사도 늘고 있다. 우리 책의 수출 계약 조건은 대체로 수입할 때와 비슷해서 인세는 대체로 7%정도인데 책에 따라서는 10%의 높은 인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행본 출판사 중 해외업무가 활발하고 비교적 많은 종수를 수출한 곳은 고려원, 일



해외로 저작권을 수출한 우리나라 책들.

본 문예춘추사에서 수입해간 김현희씨의 수기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는 일본에서 단행본과 문고판을 합해 모두 140만부 가깝게 팔려 국내 판매량을 능가했다. 선인세 1500만엔에 8%라는 높은 인세를 요구하고도 계약이 성사된 것은 북한관련 책에 대한 일본독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이다.

최근 출간된 단행본으로 수출되었거나 계약을 맺은 책의 대표적인 것은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들녘)이다. 일본 신조사 일을 해주는 번역자가 의뢰를 해왔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일본 법정대출판부에서 번역·출판을 먼저 의뢰해와서 성사가 된 경우다. 전여옥씨의 <일본은 없다> 망명 무용수 신영희씨의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저자가 수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던 경우. 일반 단행본은 출판사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외국에서 의뢰가 왔거나, 아니면 저자가 직접 나서서 수출한 경우가 더 많다.

사회 전반의 인식과 지원 필요

이처럼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수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해외업무에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출판인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출판사가 드물고, 기존의 인원으로는 영문 홍보자료 하나 만드는 것도 여간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고 사정을 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할 거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북포스트 에이

전시의 박준영 실장은 "국내 출판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외국 출판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전제하고 우리 책을 많이 알고 많이 맛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시장성이 있는 기획과 감각을 지닌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북한관련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책들, 그나마 수준이 높아진 아동출판물이나 어학서들 외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책은 전무한 상황은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한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책을 만들고, 해외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홍보 전략을 다각화하는 등 개별 출판사들의 노력이 우리책을 더욱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해외로 수출된 책에 대한 집계자료 하나 없이 개별 출판사의 각계약진만을 요구하는 우리의 상황은 '도서수출 진흥기금'을 마련,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프랑스나 수출금 전액이 면세가 되는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부러움을 더하게 만든다.

우리 책을 수출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는 단순한 외화획득에서 그치지 않는다. 책 한권이 지니는 문화외교적인 힘의 크기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절실한 때다.

— 박남정 기자